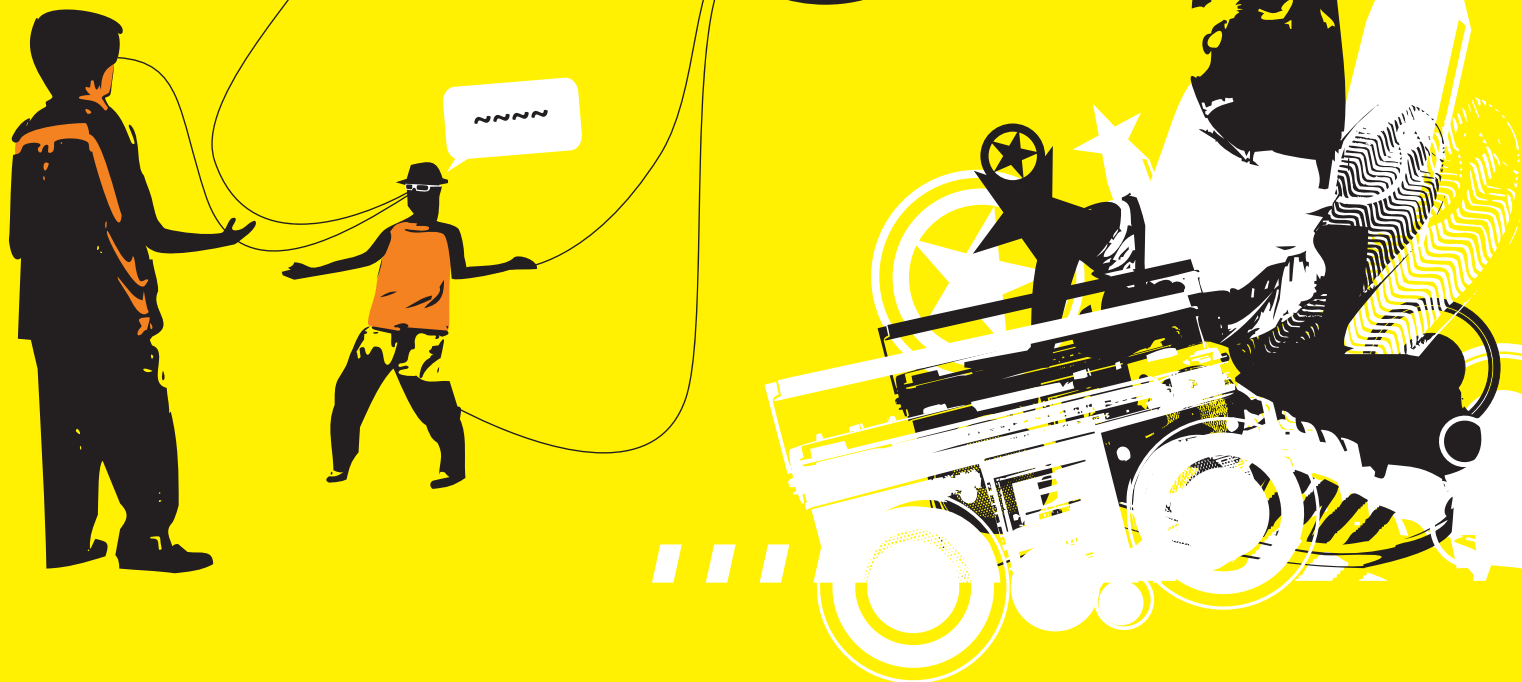


재즈를 듣다 23

힙합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원래 할렘(Harlem)은 19세기 말 백인 부유층을 위해 뉴욕 근교에 조성한 신도시였다. 명칭은 뉴욕 동쪽을 흐르는 ‘할렘강’에서 따왔다. 하지만 교통 불편으로 외면받는다. 황당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 ‘포드 T’ 자동차조차 나오기 전, 마차로 이동하던 시대임을 고려해야 한다. 유령 도시화해버리자 1901년 최초 흑인 입주를 시작으로 흑인 대중이 몰려들기 시작해 30여 년 후엔 사실상 흑인 거주 구역으로 뒤바뀌었다. 개인적으로 뉴욕에 살아본 적이 없어 현재 할렘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안전한 관광지로 변신했다는 뉴스를 읽기는 했다. 하지만 70년대 할렘은 소위 ‘게토(ghetto)’라 불린 빈민가이자 마약, 절도, 살인 등이 매일 일어나는 우범지역이었다. 1863년 노예해방선언, 1950년대 흑인민권 운동을 지나는 동안 (‘코스비 가족’ 같은 시트콤에 등장하는 흑인 중산층이 없지는 않겠지만) 흑인 대다수의 삶은 거의 나아



1900년대 초 할렘

힙합 QRCode



진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조금 과장해서 흑인이 신분 상승을 꾀할 방법은 스포츠, 쇼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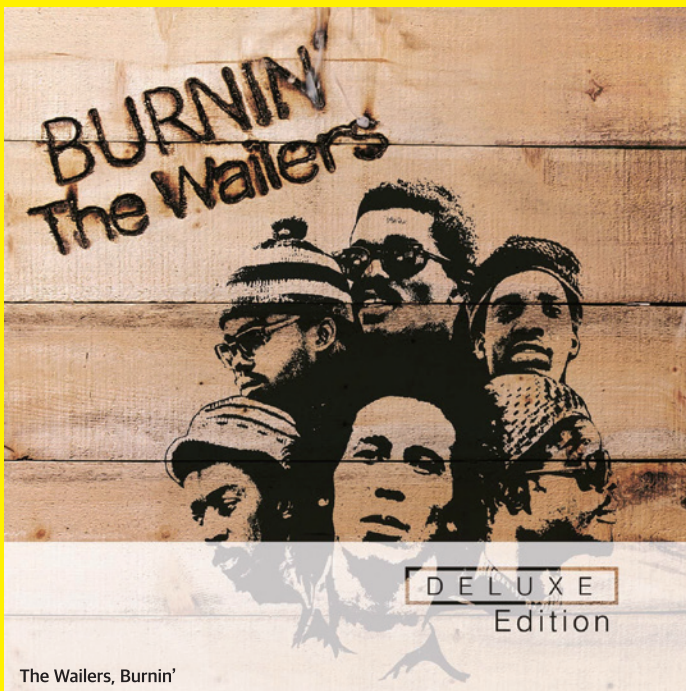
1950년대에 척 베리, 리틀 리처드 등이 촉발한 락앤롤은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를 탄생시키며 1960년대 대중음악의 주류가 되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흑인이 재즈를 만들었으나 백인 밴드(= ODJB)가 최초 재즈 음반을 녹음해 히트시켰고, 락앤롤 또한 창조는 흑인이 하고, 이득은 백인이 가져가는 패턴을 반복했다.

1970년대에 흑인은 ‘디스코(Disco)’를 만들었다. 이 장르를 대표하는 영화인 ‘토요일 밤의 열기(= Saturday Night Fever)’에 출연한 존 트라볼타의 옷차림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듯 모호하고 야릇하다. 디스코가 흑인 동성애자 모임에서 탄생했음을 아는 분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패션이다. 디스코는 현실 도피적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영화 속 주인공 역시 현실에선 별 볼 일 없는 놈팽이지만 디스코텍에선 댄싱킹으로 변신한다. 이런 사정으로 당시 디스코는 날라리 음악으로 치부돼 과소평가된 면이 있었다고 본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다시 들어보면 보컬, 연주력 등 곳곳에서 놀라운 혁신이 있었음을 알고 놀라게 된다.

70년대 말경 흑인들은 디스코의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 같다. 꿈속에선 왕(= 댄싱킹)이었을지 몰라도 꿈에서 깨면 더럽고 냄새나는 빈민 도시 안이라는 불만이 분노로 쌓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랩(Rap)’이 나온 게 아닐까 한다. 선율에 가사를 얹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울분이 충분히 표현이 안 되니 아예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통째로 리듬에 실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흑인 게토는 할렘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가난한 흑인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 그리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에도 흩어져 있다.

자메이카는 ‘레게(Reggae)’로 알려진 장르의 원산지다. UB40 같은 밴드에 의해 댄스 음악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최고 스타인 밥 말리(Bob Marley)에

서 알 수 있듯 원래 레게는 저항의 음악이다. 1973년 발표한 ‘타오르다(= Burnin)’에 수록한 대표곡 중 하나인 ‘깨어나라, 일어나라(= Get up, Stand up)’는 “네 권리를 위해 일어나라, 싸움을 포기하지 마(= Stand up for your rights, Don't give up the fight)”라고 독려한다. 내용만 보자면 소울의 대부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이 노래한 ‘일어나, 난 섹스 머신이 된 것 같아(= Get Up I Feel Like Being A Sex Machine)’가 연상된다. 이 노래는 겉보기엔 마치 정력 왕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흑인 인권을 위해 (끝없이 발기하는) 섹스머신(!)처럼 일어나라는 중의를 담고 있다고 본다. 자메이카엔 레게에 앞서 ‘스카(Ska)’라고 하는 장르가 있었다. 나이트클럽을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야외 바닷가에서 놀기 위해 만든 춤판에서 태어난 장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 ‘토스팅’과 같은, 마치 힙합의 모태로 봐도 될 듯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다.



The Wailers, Burnin'



DJ Kool Herc

디제이 쿨허크(DJ Kool Herc)는 자메이카 사람이다. 할렘을 능가(?)하는 우범지역인 브롱크스의 한 지하 오락실 파티에서 힙합을 탄생시켰다고 해 훗날 ‘힙합의 아버지’라 불린다. 소가를 틀어 놓고 바닷가에서 춤추며 놀던 자메이카 풍습을 미국으로 갖고 왔다고 해도 될 듯하다. 쿨허크의 대표 업적은 두 개의 턴테이블을 이용해 특정 부분의 비트를 반복시키는 장난이다. 지금은 디제이 사이에서 흔해빠진 기법이지만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또 레게에는 ‘토스팅(toasting)’이라 하여 비트에 맞춰 즉흥적인 말이나 율조리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힙합에서 MC라고 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 과격한 춤사위가 추가되며 마침내 힙합 씬이 흑인 사회에서 폭발했다. 개인적 추측이긴 하지만 게토의 흑인들은 레게의 형식뿐만 아니라 밥 말리가 가사에 담긴 저항의 메시지를 접하며 자신들의 직계 큰 형님뻘이자 흑인 민권 운동을 벌였던 제임스 브라운을 상기하지 않았을까? 나아가 밥 말리가 (기독교 경전 중 ‘출애굽기’를 모방해) “우리의 가나안 땅인 아프리카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라스타파리(Rastafari)’ 추종자란 점에서 미국 내 흑인 국가를 주장한 과격파였던 말콤 엑스를 떠올리진 않았을까? 또 디스코로부터 (재즈의 ‘스윙’을 계승했다고 보는) ‘그루브(Groove)’라고 하는 리듬감을 받아들였다. 이 요소를 모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소화해 낸 결과 ‘갱스터랩’이 등장한 게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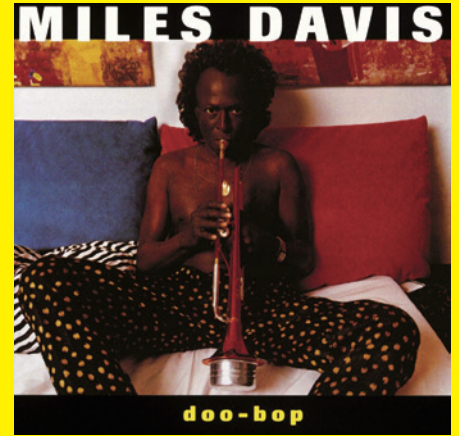
이 지점에서 놀랍게도 마일즈 데이비스가 등장한다. 재즈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듯, 1980년대의 그는 힙합에 눈을 돌렸다. 어느덧 재즈는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예술로 인정받았다. 동시에 젊은 흑인 사회로부터 외면받았다. 짐작건대



Miles Davis, On the Corner



Miles Davis, Tutu



Miles Davis, Doo-bop



US3, Hand on the Torch



Beastie Boys, Licensed to 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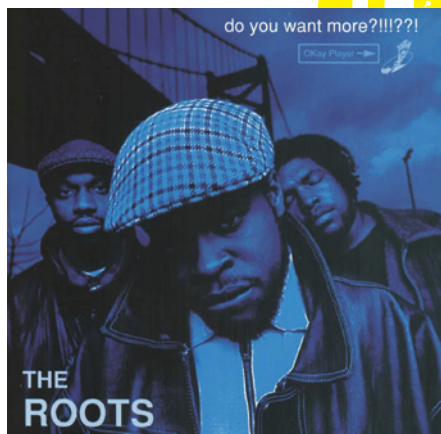


A Tribe Called Quest, The Low End Theory

그는 이 점이 싫었던 게 아닐까? 젊은 애들이 외면하지 않고 같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1972년 발표한 ‘모퉁이에서(= On the Corner)’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 쉽게 종잡을 수 없는 음반이다. ‘그래도 마일즈 데이비스니까 무슨 계획이 있었겠지’라며 긍정적 자세로 들여보지만 혼란스럽기만 하다. 아무튼 일렉트릭 기타와 일렉트릭 베이스가 음반 전체를 이끈 결과 ‘왁 + 핑키’를 비빔밥처럼 뒤섞어 낯선 점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시기상으로도 아직 힙합이 만개하기 전이니만큼 흑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긴 했는데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이런 실험적인 음반이 나온 게 이닐까 싶다. 하지만 1986년 발표한 ‘투투(Tutu)’에서 대변신한다. 핑키한 힙합 요소를 함께 담고 있는 퓨전 재즈의 걸작이다. 1992년 발표한 ‘두 밥(Doo-bop)’은 마일즈 사후에 나온 음반으로 전형적인 힙합 음반이다. 이로써 평생에 걸쳐 계속된 재즈의 혁신은 힙합으로 마무리됐다.

‘재즈 힙합’은 1990년대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유행을 탔다. 이른바 ‘오렌지족’이라 불리던 철딱서니들이 판치던 압구정동(엄밀하게는 신사동 동쪽 지역과 청담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유에스3(US3)의 1993년 작인 ‘햇불에 손대다(= Hand on the Torch)’에 수록된 ‘칸타루프(Cantaloup)’와 ‘투카 윗츠 리듬(= Tukka Yoot's Riddim)’이 큰 인기를 끌었다. ‘칸타루프’는 허비행콕이 작곡한 ‘칸타루프 섬(= Cantaloupe Island)’을 힙합으로 만든 곡이다. 비스티 보이즈(Beastie Boys) 역시 큰 인기를 끈 재즈 힙합 그룹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백인으로 구성된 1987년 발표한 데뷔 음반인 ‘라이슨스드 투 일(= Licensed to Ill)’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른 최초의 힙합 음반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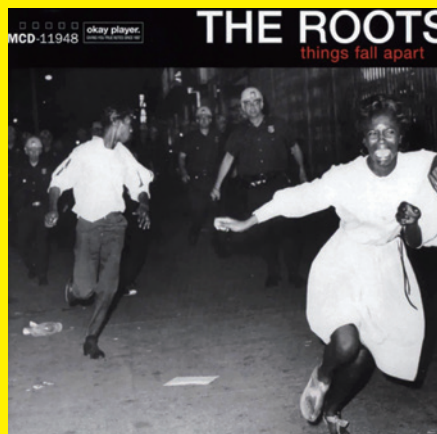
어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A Tribe Called Quest)는 재즈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를 섞는 실험을 통해 1990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드코어 랩’ 또는 ‘갱스터랩’의 대안을 제시했던 의미에서 ‘힙합 얼터너티브’라고도 불리는 미국 동부 힙합 그룹이다. 대표작으로 1991년 발표한 ‘로우 엔드 이론(= The Low End Theory)’, 1993년 발표한 ‘한밤의 습격자(= Midnight Marauder)’ 등이 있다.



The Roots, Do You Want More?!!!!?!?



The Roots, Illadelph Halflife



The Roots, Things Fall Apart

더루츠(The Roots)는 특이하게 필라델피아에서 1987년 결성한 힙합 얼터너티브 그룹이다. 음반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높아 힙합의 대부로 인정받고 있다. 1995년 발표한 ‘더 원해?(= Do You Want More?!!!!?!), 1996년 발표한 ‘일라델프 반감기(= Illadelph Halflife), 1999년 발표한 ‘무너져버린 것(= Things Fall Apart)’ 등을 추천한다.

갱스타(Gang Starr)는 MC 구루(Guru)와 DJ 프리미어(Premier)가 함께 만든 힙합 듀오다. 데뷔 음반인 ‘더 이상 착한 놈은 사양한다(= No More Mr. Nice Guy)’부터 재즈힙합으로 출발했다. 구루가 1993년 발표한 ‘재즈마타즈 볼륨 1(Jazzmatazz Volume 1)’은 재즈힙합의 고전으로 남았다.

늦게나마 블루노트 레이블에서도 재즈 힙합 음반이 출시됐다. 매들립(Madlib)이 2003년 발표한 ‘슬림의 귀환(= Slim’s Return)’이다. 이 음반은 블루노트가 보관 중인 음원을 리믹스한 결과로 나왔다. 🎧



Guru, Jazzmatazz Volume 1



Madlib, Slim's Return